서울구치소에 '국정농단 작은 정부'

박근혜·김기춘·조윤선·김종덕·최순실 등 한솥밥 '말 맞추기' 등 우려…서로 마주치지 않게 동선 관리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 혜 전 대통령.

박근혜 보석 청구 가능성 10월께 1심 선고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4일째를 맞으면서 구속 상태를 면하려고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전 보석,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 청구 카드가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법원에 구속이 적합 한지를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 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와 증거물 을 조사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소 전 보석 (보증금 납입조건 석방)을 통해서도 석방 되는 길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당장 구 속적부심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전 망이 우세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 선고는 올해 10월께 나올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구 치소에 '박근혜 게이트' 사건 장본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를 시작으로 박전 대통령의 정치권 최측근으 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도 속속 수감됐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수감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금 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는 마치 '국정농 단 작은 정부'가 꾸려진 형국이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첫 구속 수 감된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40년지기인 최씨다. 박 전 대통 령과 최씨는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구치소 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최씨의 조카이 자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풀 결정적 단서 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장시호씨도 함께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대 뇌물을 공 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장,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등도 수감방만 다를 뿐 같은 집 식구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비롯 해 같은 구치소에 있는 관련 피고인들과 마주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자 현황

수감자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13개
최순실(비선실세)	직권 남용 및 강요 등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적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직권 남용 등
최순실 조카 장시호	직권 남용, 업무상횡령 등

■ 남부구치소 구속 수감자 현황

수감자	혐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 남용 및 강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비밀누설

기본적으로 공범이면 말 맞추기 등을 우 려해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서울 남부구치

국정농단 주역들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 돼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 이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엔 '서울구치소가 청와대가 됐네. 웬만한 참모들도 있고', '거물들은 서울구치소 중 환경 제일 좋은 곳에 머무는구나. 겉만 보면 연립주택같 이 생긴 곳',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반성하게 되 네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또 '서울구치소는 작은 정부인가. 비선

실세부터 각료, 대통령까지 한자리에 모 였다', '분리 수감해야 한다. 최순실과 이 재용은 다른 구치소로 이감해야 한다'라 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미결수(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를 수감하는 곳으로, 경기도 의왕 시 포일동에 있다. 이 구치소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m²(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독거실 또는 혼거실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선 접이식 매트리스·관물대· TV·책상 겸 밥상·화장실 등이 모두 제공 된다.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되며 설거지도 직접 해야 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세월호 받침대 하부 진흙 수거 작업 현황 2일 오전 10시 현재, 세월호 선저부 하부 5번째 리프팅 빔까지 진흙 제거 완료(10㎡) ◀ 선수 선미▶ 진흙 수거 작업 진입 방향 (2일 70㎡ 수거 목표, 오전 8시부터 약 80명 동원) **(7)** 연합뉴스

세월호 접안 목포 신항 추모 행렬

'인간 띠 잇기' 도보순례 등 이어져

세월호가 지난달 31일 목포 신항에 접 안하고, 오는 16일 참사 3주기가 다가오 면서 전국에서 추모 분위기가 뜨거워지

2일 세월호가 육상 거치를 위해 대기 하고 있는 목포 신항에서는 목포지역 공 동실천회의가 '세월호 1083일,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주제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을 기워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 사를 마련했다.

행사에서 전국에서 노란 우산을 펼치 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세월호 노란우 산 프로젝트팀'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해 목포 신항 북문 앞 차로에 '사람먼저', '보고싶다'라는 글귀를 차례 로 표현했다.

퍼포먼스를 마친 1000여 시민들은 한 손에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의미의 노란 추모 리본을 들고, 얼굴에는 '침묵'을 의 미하는 마스크를 쓰고 목포 신항 철책 수 백m를 길게 늘어서 '인간 띠 잇기' 행사 에 동참했다. 행사에 참여한 추모단체와 시민들은 목포역으로 이동해 목포 버스

터미널까지 '도보순례' 행사를 진행했다. 진도 팽목항을 찾는 추모객의 발길은 2일에도 이어졌다.

2일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희 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는 1000여명이 넘는 추모객이 다녀갔다. 합동분향소에 는 지난 3년여간 모두 66만여명의 추모 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4~ 19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는 참사 3주기 추모공연 '4월 연극제'가 열린다.

한편 세월호 참사 발생 3주기와 부활 절인 16일 천주교와 개신교계에서는 다 양한 추모 미사·예배가 열린다.

광주대교구는 오는 16일 오후 3시 목 포 신항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교 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세월호 참사 3 년 미사'를 봉헌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오는 16일 낮 12 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는 예 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세월호 참사 희 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로 봉헌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두환 "5·18 발포명령은 없다"…또 궤변

회고록서 "나는 제물"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 에서 "시대적 상황이 12·12와 5·17을 불 렀다"고 주장했다.

퇴임 이후 백담사 유배와 '역사 바로 세 우기' 재판 등으로 영어의 몸이 된 이후 칩 거에 들어간 전 전 대통령이 12·12와 5·17 등 자신이 관련된 굵직한 현대사 대해 직 접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회고록' 서문에서 전 전 대통령은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12·12와 5·17이 내 사적인 권력 추구의 출발점이라고 단정 되고 있겠지만,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낸 것은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서술했다.

이와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광 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 냈다. 자신은 광주에서 벌어진 비극과 아 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물'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회고록 에서 시종일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져 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사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희생이 컸던 만큼 그 상처가 아물 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 다. 또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 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 이 없을 수 없다고 하겠다"며 자신을 '제 물'에 비유했다.

그러나 "나의 유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5·18 특별법과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에서조차도 광주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됐지 만 모두 실패했다"고 적었다.

또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 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 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재판 당시 언론 보 도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언론의 편 향된 보도로 자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에 대해 오해를 하게끔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사건 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거나 공판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그대로 알려준다는 자세 와 거리가 먼 것이었다"며 "보도기사의 기본인 사실 보도마저 편향과 왜곡이 지나 치다고할 만큼 심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처럼 부실한 보도만을 접해야 했던 국민은 언론이 제공한 왜곡된 사실 을 진실인 듯이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했다.

"미수습자 완전 수습·세월호 진상규명을"

정치인들 목포 신항 찾아

각 정당의 대권 주자와 윤장현 광주시 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세월호 접안 작업 현장인 목포 신항을 잇따라 찾아 미수습자 완전 수습과 진실규명에 입을 모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후보선 출 후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첫 주 말인 1일 목포를 방문해 세월호 접안작 업 현장을 방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신항 보안구 역 내 세월호 접안작업 상황을 둘러보고 미수습자 가족, 희생자 유가족 등과 차 례로 면담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정의당 대선 후 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목포 신항을 찾 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미수습자 가족 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 후보는 이 자

리에서"세월호 가족들이 1600만 촛불 을 만들었다. 촛불의 힘으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다"면서 "'미수습자 9명의 수습'과 '진실 규명'에 앞장서겠 다"고 역설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81일 만인 지난달 31일 목포 신항 에 무사히 접안했다는 소식을 듣고 간부 들과 함께 시청 1층 세월호 분향소를 찾 아 헌화·분향한 뒤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기원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달 31일과 지 난 1일 목포신항을 찾아 세월호, 선체조 사위원 및 유가족 등의 임시숙소 등을 둘러봤다. 이 지사는 "전남도와 목포시 는 후방지원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7년 2학기 광주국체기독학교 교육설명회 및 영어 공개수업 대국 고교, 대학 전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멸하고 없는 경주국표기록하고(6006)입니요 저희 학교는 혈압자 이원수 이사장님 (건, 택시스 환연회장)의 취치로 기독교 산앙용 배당으로 학생동 진학을 위한 국내민들 운영하는 회목대인학과 입니다. 호닝권 회송국 미국 제사스 소재 고교와 지배 결만을 맺어 공동이수 확점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충남권 학생들의 미국 유학과 국내대학 •전, 핵시스 환인회장 • 대국 일라노이주합대 출합 현, 바이블 발라치 국제기목학교 학창 이사장 • 미국 핵사스 교교중 공통학程 이수의 • TEFL, SST, SV, 미국 원서 교육수업 교육과정 • 기독교(크리스런) 무대 • 고입 대한 검정고사 및 수능을 위한 집중과정 • 매국 현지 화성영어수업 • 소수정원[10명] 수업실시 · #82 +938 34(87)38 24) · 기숙학교(회상의 기숙사 원비) 교육설명회 및 영어 공개강의 ▶국제반 국내반 수시모집 및 2학기 모집 이 권(외대통역대학원 동시통역사.(전, 봉선동 이권아학원장) 참소 : 광주국제기독학교 전날 담양군 중리도통길 42-34 교육상담 061-381-0000 일시 : 2017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One day when seventeen years old Galleo wandered into the cathedral of his native tow Piss. In the midst of his service he looked up at the lamps hanging by long chains from the high ceiling of the church. The something very difficult to explain occurred. He found himself no longer thinking of the building, worshippers, or the services of his artistic or religious interest: of his reluctance to become a physician as his father wished. As he watched the swinging lamps he was suddenly wondering if mayhap heir swings. whether long or short, did not occupy the same time. Then he tested this susposition by counting his pulse, for that was the only watch he had with him. Where was Galleo born? What did his father wish him to become: How old was he, when he wandwed into the cathedra? 5. How did he test that supposition of his?

광주국제기독학교 GCDS www.gc-ds.com 상담 및 문의 & 061-381-1365 / 061-381-0000

후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m² 건물488m²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